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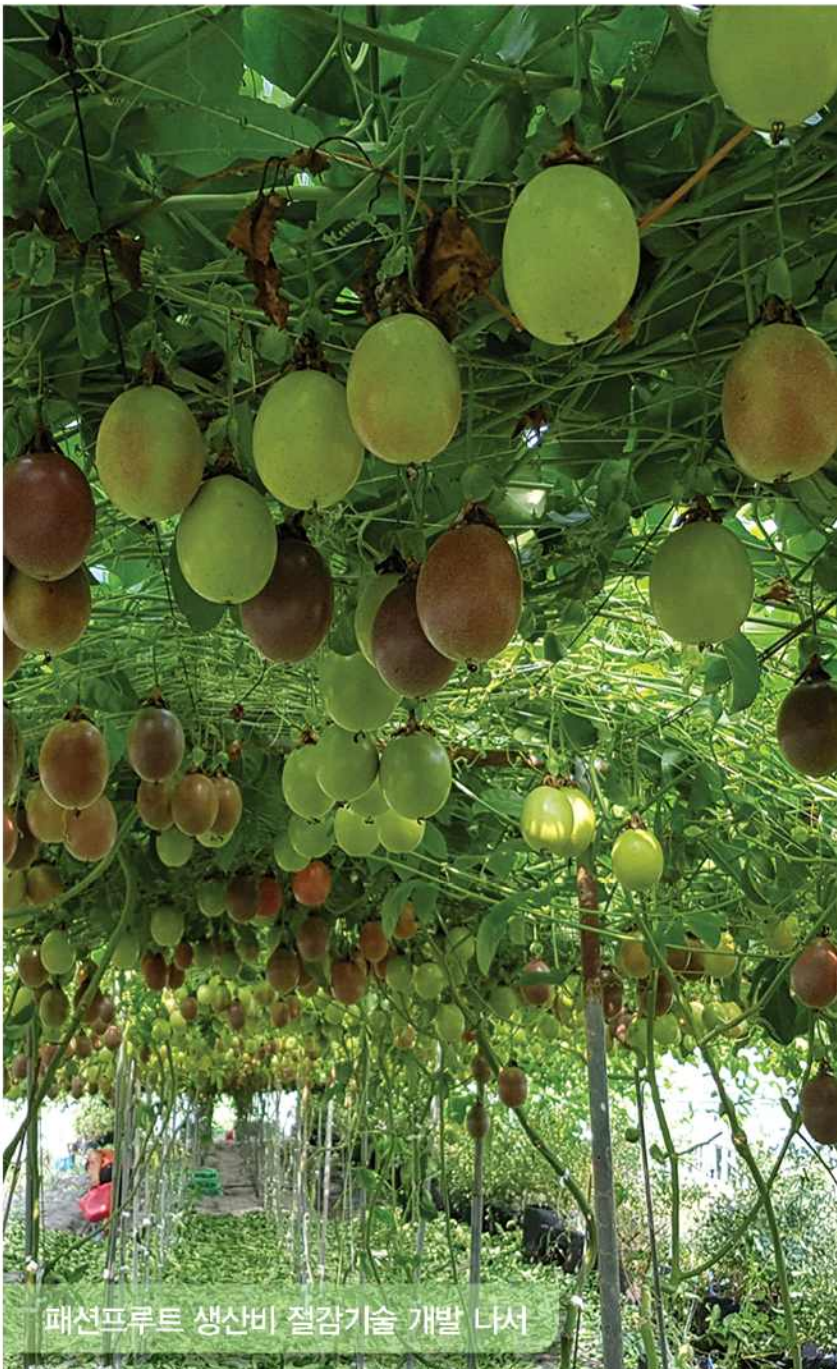
2018년
5월 첫째주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낳다
전라도천년 1000

VOL. 182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May

주간 전남농업



패션프루트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나서

주간 날씨정보

기압골의 영향으로 2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 확대 나서

정책동향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달성 청신호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2018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2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14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8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한육우 사육 및 가격전망
- ▶ 돼지 사육 및 가격전망
- ▶ 육계 사육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8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한 배 탄 7종의 채소류, 싱가포르까지 싱싱하게
- ▶ aT, 미래에 클 K-Food 프로젝트 수출유망품목 발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전남농업기술원, 패션프루트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나서
- ▶ 전남농업기술원, 사료작물 미래 생산기술 개발 박차
- ▶ 전남농업기술원,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 지원 나서
- ▶ 전남농업기술원,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 확대 나서
- ▶ 샐러드용 상추 새 품종 나왔다
- ▶ 5월은 마른 풀사료 만들기에 딱 좋아
- ▶ 사료용 벼 담수직파하면 수입 사료 대체할 수 있어요
- ▶ 초저온동결보존 감귤 품종 해동 후 재생 성공
- ▶ 복숭아 병해충, 미리 꼼꼼히 살펴 제때 방제해야



6. 정책 동향 24

- ▶ 전남도, 산란계농가 환경 개선 축사시설 지원
- ▶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달성 청신호
- ▶ 로컬푸드, 대도시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7

- ▶ 여수시, 모내기철 휴일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 고흥군, 고품질 쌀의 시작 범씨소독으로
- ▶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
- ▶ 진도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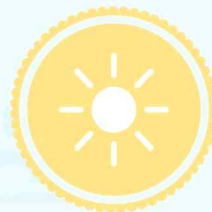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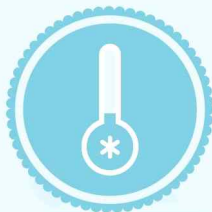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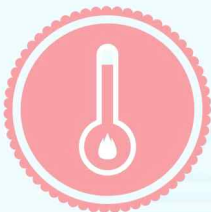
8. 해외 농업정보 31

- ▶ 한국 채소 4개 작물, 베트남에 부리 내린다
- ▶ 일본, 대만시장 작은 크기 사과로 중간소득 계층 공략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4. 30.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4

- ▶ 2018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6.8°C
(평년대비 0.5°C 높음)
- 최고기온 : 22.9°C
(평년대비 0.4°C 낮음)
- 최저기온 : 11.3°C
(평년대비 0.9°C 높음)
- 강 수 량 : 3.9mm



목포시

- 평균기온 : 15.7°C
(평년대비 1.2°C 높음)
- 최고기온 : 20.8°C
(평년대비 0.4°C 낮음)
- 최저기온 : 11.5°C
(평년대비 1.1°C 높음)
- 강 수 량 : 3.1mm

여수시

- 평균기온 : 16.0°C
(평년대비 0.8°C 높음)
- 최고기온 : 19.8°C
(평년대비 -)
- 최저기온 : 12.7°C
(평년대비 1.0°C 높음)
- 강 수 량 : 5.6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 한육우 사육 및 가격전망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 1세 미만 사육 마릿수 증가와 도축 마릿수 감소가 예상되어 6월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1.2% 내외 증가 전망

▶ 5월 도축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전망

- 5월 도축은 거세우 출하예정 물량 부족으로 전년보다 감소 전망

▶ 5월 도축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전망

- 도축 마릿수 감소로 5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작년보다 상승 전망

▶ 돼지 사육 및 가격전망

▶ 5월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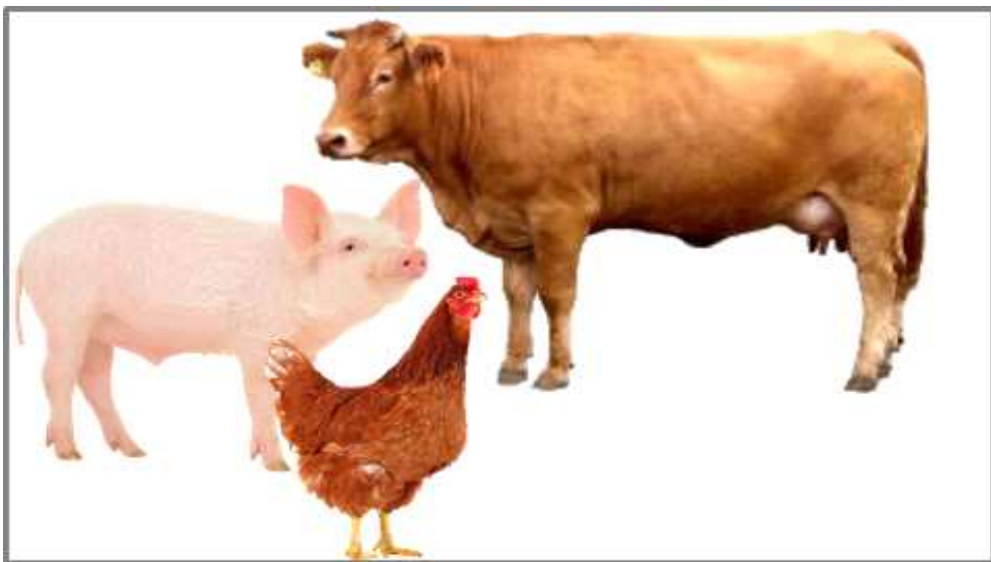
- 5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보다 1.5% 증가한 7만 4천톤 전망
- 5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이로 인한 돼지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3만 5천톤 전망
- 5월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하락한 탕박 기준 kg 당 평균 4,800~5,100원 전망

육계 사육 및 가격전망

5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한 1,200~1,400원/kg 전망

- 3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대비 0.3% 감소한 27,966톤
- 3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1.6% 증가한 512만 마리,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5.5% 감소한 798만 마리 추정
- 병아리 생산 증가로 5월 육용계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7.5% 증가 추정
- 5월 도계 마릿수는 육용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8.3% 증가 전망
- 도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한 1,200~1,400원/kg 전망
- 2018년 1~3월 종계 입식 감소로 10월 이후 병아리 생산잠재력 일시적 하락 예상되나, 노계 도태 지연될 경우 전년보다 상승할 듯
- 도계 증가로 6~7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4. 30.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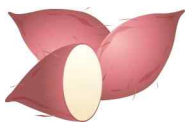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44,520	44,72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400	31,800	39,987	↑	11.3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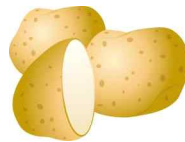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35kg	178,200	176,600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4,500	172,000	154,733	↑	15.2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42,400	41,200	↑	6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630	26,400	25,853	↑	64.0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104,400	114,000	↑	16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1,850	39,500	29,510	↑	253.8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8,000	8,200	↑	1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525	6,950	5,357	↑	49.3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8kg	5,900	5,700	↑	65.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700	3,560	4,515	↑	30.7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0개	32,333	31,667	↑	2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167	26,000	34,591	↓	6.5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개	18,800	19,000	↑	7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100	10,550	12,820	↑	46.6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60kg	1,150,000	1,150,000	↑ 10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00	560,000	725,867	↑ 58.4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37,000	36,4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350	56,400	52,680	↓ 29.8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150,000	15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0,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20,600	18,000	↑ 1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00	17,350	18,517	↑ 11.2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32,600	29,000	↓ 2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900	41,300	32,180	↑ 1.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kg	1,260	1,160	↓ 2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20	1,620	1,811	↓ 30.4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5kg	30,200	27,000	↑ 6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965	18,050	22,303	↑ 35.4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kg	17,600	17,000	↑ 4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150	12,200	14,300	↑ 23.1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28,200	29,600	↑ 4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550	19,450	26,603	↑ 6.0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5kg	24,600	24,600	↑ 2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050	19,350	20,483	↑ 20.1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39,000	40,400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650	37,600	43,756	↓	10.9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5kg	36,400	37,800	↓	1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550	43,000	44,333	↓	17.9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34,400	34,800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200	35,200	34,733	↓	1.0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0g	7,900	8,289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75	7,791	6,774	↑	16.6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kg	4,795	4,814	↓	1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02	5,547	5,771	↓	16.9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30kg	498,000	498,0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000	519,000	532,333	↓	6.4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kg	13,400	13,800	↑	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150	12,450	12,267	↑	9.2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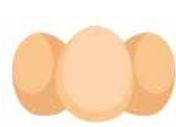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kg	7,200	6,800	↓	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00	7,400	8,007	↓	10.1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0g	1,754	1,815	↓	1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73	2,065	1,904	↓	7.9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30개	4,361	4,331	↓	4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17	7,809	6,012	↓	27.5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L	2,516	2,516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6	2,529	2,531	↓	0.6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4. 30. 기준 / 단위: 천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769	-	5,342	-	↑ 8
거세	6,834	6,791	6,229	↑ 0.6	↑ 9.7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66	-	2,859	-	↑ 14.2
수	3,883	-	3,443	-	↑ 12.8

육우(60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573	3,53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		↑ 24.7

젖소수송아지(7일령)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3	24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 26.6

돼지(11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03	37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6		↑ 5.8

육계(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435	1,44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6		↓ 28.5

계란(원/특란10개)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25	89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7		↓ 52.5

오리(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947	3,13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9		↑ 13.6

*자료 출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한 배 탄 7종의 채소류, 싱가포르까지 싱싱하게

- 선박으로 엽채류·과채류 혼합 수출 성공... 가격 경쟁력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쉽게 시드는 엽채류와 저온장해 발생이 쉬운 과채류의 수출용 수확 후 관리 기술을 확립해 싱가포르까지 선박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 수출 품목은 싱가포르에서 수요가 많은 엽·과채류 7종, 총 1.2톤이다.

* 엽채류 5종 : 상추, 시금치, 깻잎, 열갈이배추, 열무/과채류 2종 : 풋고추, 애호박

- 기존에는 한 가지 품목의 수송 최적 온도를 적용해 수출해왔다.
- 이 때문에 여러 품목의 엽채류와 과채류를 혼합 수송할 경우 쉽게 부패하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져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선박 수출이 어려웠다.
- 이번 수출은 수확한 뒤 예비 냉장을 거쳐 수송할 엽·과채류 7종의 특성에 맞춰 컨테이너 온도를 3℃에 맞추고 환기구를 1/5만 개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각 품목에 맞춰 포장 방법도 달리했다.
- 3월 28일 수확해 4월 1일 싱가포르로 수출한 뒤 4월 11일부터 4일간 현지 유통을 했다.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적용한 채소는 수확 17일 후까지 모두 신선한 상태로 판매됐다.
- 기존 방식대로 상자 포장한 상추는 20~30% 정도 물러졌으나, 개선한 기술을 적용하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물러짐이 없었다. 시금치, 열갈이 배추, 열무, 풋고추와 애호박도 신선도를 유지했다.

- 특히, 깻잎은 저온에 민감해 기존 방식에서는 현지에서 60% 이상 꼭지 색이 변했고, 15%는 잎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 그러나 개선한 기술로는 꼭지 변색이 10%만 나타났고, 저온장해는 없었다.
- 이번 수출 시 적용한 대표적인 개발 기술은 풋고추가 진녹색을 띠고 단단해지는 시기에 거둬 저온장해를 막는 식물휘발성 물질(Methyl Jasmonate) 처리를 해 내포장 필름으로 포장한다.
- 애호박은 100 μ m 필름으로 소포장 한 뒤 상자에 넣고 보온을 위해 알루미늄 필름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다.
- 상품 가치를 유지한 채 엽채류와 과채류를 함께 선박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중·장거리인 싱가포르에도 선박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물류비도 항공 수출의 1/6 수준이어서 한국산 채소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 아울러, 선박 수출 시 큰 고민이었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산 채소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수출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금산 만인산농협이 함께했다.
-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입 관계자와 소비자들도 현지에 유통한 엽채류와 과채류의 신선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가격 부담이 낮은 강점을 살려 알타리무와 쌈배추, 오이, 가지 등도 수출되길 희망했다.
- 교민들도 해외에서 우리 입맛과 정서에 맞는 채소를 쉽게 구할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한국 농산물의 수출길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aT, 미래에 클 K-Food 프로젝트 수출유망품목 발굴

-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진 노력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5월 3일(목)까지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모집한다.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가운데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라면 등 10개 품목이나, 수출 확대가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적이다.
- aT는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을 평가하여 미래클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유망품목을 추천받고 있으며, 품목의 차별적 기능, 수출국 예상수요 등도 평가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육성을 aT가 주도하며 전문 무역상사의 무역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국산 농산물 생산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라면 누구나 본 사업에 지원할 있으며, 선정된 품목은 시장성 테스트, 시험수출 및 수출정착 지원, 시장다변화 지원 등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5월 3일까지 aT 관할 국내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전남농업기술원, 패션프루트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나서

- 아열대과수 패션프루트 보온재료를 이용한 2년 재배 작형 개발 -

- 패션프루트(백향과)는 남아메리카의 고산지역에 자생하는 과수로 비교적 낮은 3℃이상의 온도조건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아열대과수인 패션프루트를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온재료 만을 이용하여 2년 연속 재배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에 나섰다.
- 현재 패션프루트 재배농가 대부분은 무가온하우스에서 1년 재배하고 끝내기 때문에 초기 묘목구입에 따른 경영비가 많이 들어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는 무가온하우스에서 보온재료인 비닐+보온덮개+축열물주머니를 활용 보온효과를 높여 1번 심어 2년 동안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사료작물 미래 생산기술 개발 박차

- 태양광 발전 병행 사료작물 재배기술 개발 등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태양광발전시설 아래에 사료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등 사료작물 미래 생산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 최근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기존 6%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태양광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부지확보인데 태양광 발전과 영농 병행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사료작물 성장에서 햇볕의 양은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 그늘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어 간척지에서 겨울철 주요 사료작물인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 국내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재배면적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반해, 작년 기준 국내 육성 품종 종자 자급률은 28.8%에 불과하였고, 실제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 자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 수입 종자는 검역상 문제로 수입금지 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과 수입대체를 위해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종자 생산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봄 파종에 적합한 사료작물 선발과 최적 파종시기 설정 등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 지원 나서

- 5개 시군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수리가 쉽지 않은 도서·오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 지원에 나선다.
- 농기계 교관 및 품목별 전문지도사 10명으로 편성된 전남농업기술원·시군 합동수리반은 오는 5월 8일부터 9월 말까지 진도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기간 중에는 농업기계 점검·정비요령, 안전관리 방법 등 농업인 교육을 병행하여 자체수리 능력 배양은 물론 농업기계 안전 관리와 내용 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간 중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중 고장으로 방치된 농기계는 마을 회관 등 현장에서 수리하며,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 여성농업인 등의 농업기계는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수리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 확대 나서

- 노동력 23% · 생산비 10% · 경영비 8% 절감, 일석삼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직파 기술인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적극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벼 무논점파기술은 트랙터나 승용이앙기에 파종기를 부착하여 씨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골을 파면서, 싹 틔운 볍씨를 5~7알씩 모내기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비료와 동시에 파종하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은 못자리 설치 등 벼 육묘과정이 생략되는 재배법으로 기존 모내기에 비해 노동력 23%(9.5→7.3시간/10a), 총 생산비 10%(753→677천원/10a), 경영비 8%(478→440천원/10a)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 또한, 기존 직파재배에서 문제 되어왔던 입모 불균일과 잡초발생, 쓰러짐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기술이며, 수확량이 기계모내기와 비슷한 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샐러드용 상추 새 품종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상추 소비를 주도할 샐러드용 상추 『햇살 적로메인』 품종과 여름철 고온기에도 장다리가 늦게 올라오는 흑치마 상추(잎상추)인 『매혹흑치마』 품종을 개발했다.
- 상추 농가는 고온기 재배 시 생리장해와 장다리, 내병성, 잎 두께, 적색이 잘 드는 안정된 품종을 선호한다. 햇살적로메인과 매혹흑치마는 이러한 농가의 요구에 맞춰 개발했다.
- 반결구형 상추인 햇살적로메인 품종은 장다리가 파종 후 118일쯤에 늦게 나온다. 수량은 주당 60매 정도이며 1장당 무게는 평균 14.7g이다. 모양이 탐스러워 햄버거·피자의 재료나 샐러드, 쌈으로도 알맞다.
- 지난해 개발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매혹흑치마 상추는 잎이 적색이고 수량은 주당 67매 정도다. 주당 무게는 평균 358g으로 1장당 무게는 평균 5.3g이다. 또한, 쓴맛이 적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젊은 소비자층에 호평이 예상된다.
- 재배 농가에서는 전체 수량도 중요하지만 1장당 무게가 많은 품종을 선호한다.
- 앞서 소개한 2품종 외에도 『춘하추적치마』, 『자혹맛치마』, 『햇살적촉면』 품종과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원교11-15』 등 유망한 10계통도 함께 지역적응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내 육성 상추 품종의 우수성을 농가와 유통인 등에 알려 현장 농가 반응을 듣고 종묘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새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5월은 마른 풀사료 만들기에 딱 좋아

- 사료작물 이삭 80% 패고 4일 이상 비 예보 없을 때 제조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비가 적은 5월은 『저(低)수분 저장 풀사료』 만들기에 알맞은 때라며 생산 방법을 소개했다.
- 건초는 산업체와 농가에서 섬유질배합사료를 만들 때 주로 이용하며, 수입 풀사료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대표 겨울 사료 작물인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이하 IRG)를 이용하면 건초(수분 함량 20% 이하)와 헤일리지(수분 함량 40% 전후) 등 다양한 저 수분 저장 풀사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 수확 시기를 맞은 IRG는 이삭이 80% 정도 팽 즈음 4일 이상 연속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정해 저수분 풀사료를 만든다.
- 먼저, 이슬이 걷히는 오전 9시 이후에 수분 증발 촉진 장치를 부착한 『모우어 컨디셔너』로 수확하고,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그대로 뒤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날려 보낸다.
- 수확한 작물로 건초를 만들려면 수확한 다음 날부터 3일 정도 1일 1회 뒤집는 기계(테더)로 뒤집고(반전), 헤일리지를 만들려면 풀을 벤 후 2일 정도 뒤집는 작업을 해준다.
- 마지막으로 잘 말린 풀은 집초기(풀 모으는 기계)로 모아 바람골을 이용해 반나절 정도 더 말린 다음, 오후에 두루마리(롤) 형태로 만들어 비닐로 감는다(곤포 작업). 이렇게 보관하면 품질 변화 없이 질 좋은 상태로 소에게 먹일 수 있다.
- 아울러, 건초를 생산할 때 수확량(40톤 이상)이 많으면 뒤집는 횟수를 1일 2회로 늘려준다.
- 일기 예보 중 하루 정도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풀을 벤 후 첫날은 비를 맞히고 4일 정도 뒤집어 주면 큰 품질 변화 없이 건초 생산이 가능하다.
- 단, 건초를 만드는 중간에 비가 오면 말리는 것을 멈추고 헤일리지용 풀사료 미생물 첨가제를 넣어 헤일리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사료용 벼 담수직파하면 수입 사료 대체할 수 있어요

- 기계이앙보다 노동력 적고 수량·사료가치·경제성은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함께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료용 벼의 담수직파 재배법과 알맞은 품종을 소개했다.
- 담수직파 재배법은 논에 물을 가둔 뒤 논바닥을 고르고 싹 틔운 볍씨 종자를 표면에 뿌리는 방법이다. 이는 쌀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사료용 벼의 수확량을 늘려 값비싼 수입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재배법이다.
- 사료용 벼를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목우나 영우 품종을 선택하고, 기계이앙보다는 담수직파가 노동력은 적고 수량성이나 사료가치, 경제성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료용 벼의 담수직파 재배 방법은 일반 벼 재배법과 비슷하지만 사료용 벼는 식물체 전체 양이 많아야 하므로 질소 비료를 10a당 18kg 사용해 일반 벼 재배보다 많다.
- 담수직파는 기계이앙보다 10a당 총체수량이 8.8%(160kg) 높고, 이삭건물중은 10a당 60kg로 무거워 사료가치가 높다.
- 또한, 기계보다 노력과 시간이 적게 들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어 생산액이 증대돼 수익도 10a당 7만 9,260원 높다.
- 사료용 벼는 물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방법이 일반 벼 재배와 같고 10월 전에 수확이 가능해 동계 사료 작물과의 2모작 재배에도 좋다.
- 벼 재배 농가는 농기구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 없고, 일반 벼에 비해 탈곡·건조·저장·도정 과정이 필요 없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축산 농가는 값비싼 수입 사료를 대체할 수 있고, 영양 가치와 가축이 잘 먹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 조사료 생산단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초저온동결보존 감귤 품종 해동 후 재생 성공

- 비용 절감, 집약 관리 가능...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확보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감귤류의 줄기생장점을 초저온에서 얼려 보존한 후 해동해 재생하는데 성공했다.
- 감귤류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과수로 전체 과수 생산량의 20%를 차지한다. 종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육종을 위해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해야 하나 다른 작물 종자와 달리 저온저습의 조건에서 저장이 어려워 영양체 상태로 포장에서 보존하고 있다.
- 포장에서 영양체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경우, 비용 및 노력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소실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 높은 보존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 연구에 이용된 감귤류는 쿡유레카와 후로스트유레카 등 두 품종이며, 작은방울유리화법과 기내아접 기술이 활용됐다.
- 우선 식물체에서 줄기생장점을 분리한 후 작은방울유리화법으로 급속 냉동한다. 냉동된 줄기생장점은 초저온튜브의 형태로 액체질소탱크 안에 보존된다.
- 보존된 줄기생장점은 해동 후 삼투조절을 거쳐 식물체 가지에 접목 시키면 재생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기내재분화를 위해 온실 순화 등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탱자 실생묘를 대목으로 한 기내아접 기술을 활용해 온실 순화 등의 과정 없이 빠르고 온전하게 식물체 증식이 가능했다.
- 농촌진흥청은 감귤류 초저온동결보존 기술을 토대로 딸기와 같은 병충해로 인한 소실 가능성이 큰 과채류 영양체 자원의 초저온 동결보존기술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복숭아 병해충, 미리 꼼꼼히 살펴 제때 방제해야

- 5월부터 복숭아 잎오갈병·잣빛무늬병·나방류 발생 우려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5월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숭아 병해충 잎오갈병, 잣빛무늬병, 나방류의 관리를 당부했다.
- 따라서 예찰과 함께 각각 방제용 약제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강화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균제와 살충제는 등록된 제품만을 뿌리도록 한다.
- 복숭아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살균제, 살충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에 들어가 농업기술-농자재-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숭아 잎오갈병은 어린잎에 발생해 주머니 같은 혹을 만들며 잎이 오그라든다. 잎이 나기 시작하는 때부터 감염되며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잘 생기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 복숭아 잣빛무늬병은 꽃잎을 갈변시켜 죽게 만들어 줄기까지 감염시킨다. 또한 과실에서 회색빛 곰팡이 포자가 만들어져 감염된 과실이 무르게 된다.
- 잣빛무늬병균은 주로 병든 과실이나 가지에서 월동했다가 5월부터 복숭아나무에 침입한다. 잣빛무늬병 방제용 살균제를 발생 초기에 7일 간격으로 뿌려 병원균의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5월부터 잎오갈병과 더불어 꾸준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
- 해충으로는 복숭아순나방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복숭아순나방은 유충이 새순이나 과실 속 조직을 갉아먹는 해충으로 제때 방제해 해충의 밀도를 낮춰야 한다.
- 복숭아순나방 1세대 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하는 시기가 5월 상순이므로, 복숭아순나방 방제용 살충제를 발생 초기 7일 간격으로 살포하여 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남도, 산란계농가 환경 개선 축사시설 지원

- 5월 2일까지 접수... 살충제 계란 발생 최소화 위해 동물복지형 지원 -

- 전라남도는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추진된다.
- 지원을 바라는 산란계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축산 관련 인증서 등을 첨부해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산란계 사육환경 축사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내부에 설치된 시설장비(집란계분 벨트, 급이급수전기환기 시설 등)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산란계 농가다. 지원 형태 융자 80%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산란계농가의 생산성을 높여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계란을 소비자들 에게 공급토록 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달성 청신호

- 총 1만 200ha로 95% 넘겨 전국 최대... 간척지 5월 추가 접수 예정 -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까지 세 달 동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 150여ha가 접수돼 계획(1만 698ha) 대비 95%의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5월 일부 간척지에서 추가 접수를 받으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남도는 그동안 올해 목표 면적 달성을 위해 수 십 차례의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각종 교육, 1시군 1담당제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집중 홍보해왔다.
- 이와 함께 현장에서 요구한 사업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지침을 개선·보완해왔다.
- 특히 당초 2월 28일까지인 사업 신청 기간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농지도 전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벼 재배 농지로 확대하는 등 7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영되도록 했다.
- 또 사업 실적을 반영한 시군별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농림사업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 참여를 이끌어왔다.
- 전라남도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규모 벼 경작농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남 벼 재배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만 1천여 쌀전업농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 또 농협, 농·축산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역할을 분담해 타작물 종자 확보와 판로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 전라남도는 고흥, 해남 등 일부 신규 간척지의 경우 농어촌공사와의 임대 계약체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 시스템을 오는 5월 18일까지 개방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출처 : 전라남도

로컬푸드, 대도시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 도농상생형 대도시 직매장 지원사업자 신규모집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근 대도시에서 판매하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농산물 판로 확대와 대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 『대도시형 직매장』은 광역-기초지자체가 협업해 소비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 도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 농업인들의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 영세·고령농 등 취약 농가 우선배려, 얼굴 있는 먹거리, 농산물 이동거리 최소화 등 로컬푸드의 본래 취지를 이어가면서 도시 소비자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 농식품부는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수집차량 구입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 특히, 도농 간 이해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구매 공간 외에도 내부에는 농가레스토랑을 마련해 외식과 교육·체험장 등으로 운영되도록 부대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모내기철 휴일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5월 5~27일 공휴일에도 농기계 45종 대여 가능 -

- 여수시가 모내기철을 맞아 휴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 휴일 운영기간은 5월 5일부터 27일까지며, 농민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45종의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 휴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전에 시 농업기술센터 (061-659-4466)로 연락해 보유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고를 예약해야 한다.
- 출고시간은 오전 9~11시, 반납은 오후 4~6시까지다.
- 시는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출고에 앞서 기본적 조작법과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있다.
- 대형농기계의 경우는 무상으로 운송을 해주고, 현장 출장수리를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출처 : 여수시



고흥군, 고품질 쌀의 시작 범씨소독으로

- 키다리병 등 병해충 사전예방 -

- 고흥군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고품질 쌀 생산의 시작점인 범씨소독 중점 홍보에 나선다.
- 키다리병, 벼 잎선충, 도열병 등 범씨를 통해 전염되는 병해충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벼농사의 첫 단계인 소금물가리기 및 올바른 범씨소독 방법과 범씨 파종요령 등을 기술지도 한다.
- 일반 재배 시 적용약제 별로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다음 약액 20L당 범씨 10kg을 30℃의 물 온도에 맞춰 48시간 소독하고,
- 친환경 재배 시 손쉽게 할 수 있는 온탕소독은 60℃의 물 100L에 벼 종자 10kg을 10분간 담갔다가 바로 찬물에 30분 담근 후 석회유황(22%) 50배액을 넣고 30℃에서 24시간 침지하여 키다리병 등 각종 종자전염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종자 발아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 육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종자 200g(종이컵 1컵)를 가져가 의뢰하면 3일 후 결과를 알 수 있고, 발아력 85% 이상이면 사용 가능하다. 종자 상태가 의심되면 꼭 검사를 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

-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

-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4월 26일 영광 5일 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농정과 합동으로 2019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캠페인 전개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 PLS 제도는 작목별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지난 2016년 12월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 이 제도는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돼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의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번 캠페인은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이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 살포 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농약판매처에도 PLS제도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목에 맞는 농약 판매와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정량 판매해줄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허용목록 추가하기 위해 1,197개 항목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영광군

진도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 진도군이 쌀 재배면적 감소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필지도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며,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필지의 경우에도 보조금 100% 지급 및 조사료 종자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진도군의 논 타작물 재배 목표는 395ha이며, 신청면적은 4월말 현재 320ha로 계획면적의 82%를 달성했다.
- 군은 간척지 경작 농업인, 들녘경영체, 대규모 경작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희망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이다”며 “앞으로도 과잉공급에 따른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진도군



▶ 한국 채소 4개 작물, 베트남에 뿌리 내린다

- 참외 · 호박 · 양배추 · 상추 국가장려품종 선정... 종자 수출 증가 기대 -

- 우리나라 채소들이 베트남 땅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국의 채소 4개 작물, 6개 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려품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선정된 국가장려품종들은 참외 슈퍼007꿀 · 참사랑꿀 품종과 주키니 호박 스타올 · 아주라 품종, 양배추 CT-17, 상추 하청이다.
- 코피아 베트남센터는 등록 품종에 채소 맞춤형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올해부터 3년간 소득 향상을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베트남의 채소 생산 기술 수준을 높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우수농산물생산(VietGAP)을 위한 표준 기술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현지에서도 우수 품종의 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 업체를 통한 종자 수출도 진행되고 있어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일본, 대만시장 작은 크기 사과로 중간소득 계층 공략

- 일본농업신문은 재무성 무역통계를 인용하여 일본의 2017년산(9월~다음해 8월) 사과 수출량이 2월 시점에서 2만 8,554톤으로 2년 만에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 대만 등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크기가 큰 사과 수확량이 적어 당초에는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중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작은 크기 사과 수요를 확보했다. 그 결과 수출은 회복세로 이어졌고 산지 관계자는 소매점 수요가 활발하여 전체 수출량은 3만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선물용 거래가 많아 15년산 실적은 3만 6,304톤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16년산 실적은 일본산 가격 상승으로 거래량이 줄어 2만 7,558톤으로 전년 대비 25% 급격히 감소했다.
- 2017년 일본에서 대만으로의 수출실적은 선물용 거래가 많은 2월까지 거래량이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주력시장인 대만에는 2만 1,941톤을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아오모리현 수출업체로 구성된 사과수출협회는 현지 업체가 중간크기 과일을 이용해 선물시장 재료로 제안해 실행한 결과 평가가 좋았다고 전했다.
- 대만뿐 아니라 홍콩, 태국 수출도 순조롭다고 일본농업신문은 보도했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2월 홍콩 수출량은 5,3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태국은 632톤으로 2.7배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관계자는 상대국 중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단가가 낮은 작은 크기의 과일을 판매해 소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일본은 해외시장의 고급 선물용으로 크기가 큰 사과 위주로 수출했으나, 중간소득 계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대만시장 등에 작은 크기 사과를 수출해 수출량이 확대되었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타깃 소비자별로 제안 상품을 차별화해 나간다면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4. 3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미국 남부 평원지역에 폭우 예상되면서 전일 대비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3.1% 상승했다. 미국 남부 평원 겨울 밀 재배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선물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봄 밀 선물가격은 캐나다 통계청이 캐나다의 밀 농가가 1년 전보다 12.8% 많고,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인 2,526만 에이커를 파종할 것이라고 밝혀 영향을 받았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9%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5세션 연속으로 상승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대두가격 상승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았다. 미국 주요 재배지역의 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가격은 제한적으로 상승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7% 상승했다. 대두 가격은 아르헨티나의 수확량 감소로 미국이 대두박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승했다. 대두박 선물가격은 2.8% 상승해 지난 3월 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주 아르헨티나에 운송될 예정이었던 대두박이 선박 사고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2018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통해 쌀가공식품 판로 확충, 수출시장 개척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남두)가 주관하는 『2018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 이번 산업대전은 종합전시관과 기업관으로 구성되며, 단순 상품 전시가 아닌 쌀 가공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즐기는 다채로운 전시로 쌀가공산업의 다양한 가치를 소개할 계획이다.
- 종합전시관(8부스)은 쌀가공품 품평회 TOP10 선정 제품, 가정 간편식(HMR), 글루텐프리·영유아 등 제품 소개와 쌀가공제품 안내, 쌀가공산업 트렌드, 수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 기업관(56부스)에서는 떡·면·과자 등 다양한 품목의 48개 업체가 참여해 쌀가공식품 관련 주력 상품과 기술을 선보여 쌀가공품의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온라인전시관(riceshow.krfa.or.kr)을 통해 먼저 만나볼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맛·품질·상품성을 두루 갖춘 최신 쌀 가공품의 트렌드를 알아 볼 수 있는 2018 쌀가공품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TOP10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부정 청탁 금지법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으면 "1회"로 평가 가능

→ 1차 식사와 2차 술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에 해당

A와 B가 각각 접대받은 금액은?
 식사비 60만원/3명 + 술값 300만원/3명
 = 1인당 120만원!

각자에게 소액 비품 선물이
 업무 관련 선물까지 선별한
 선물이 수수한 선물이 해당!



00회계법인

대표 C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00회계법인도 형사처벌(벌금) 대상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82

